

광주·전남 주요 상장사 적자 허덕

코스피 상장 536개사 중 63곳 상반기 적자 전환

한국전력·보해양조·금호산업 등 3곳 포함

금호타이어·대우에이텍 등 영업익 하위 20위

코스닥 오이솔루션·서산 2분기 흑자로 돌아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수익 창출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실적 부진에 적자가 지속되는가 하면, 영업이익·순이익이 뒷걸음치면서 적자로 전환한 기업들도 잇따랐다.

◇지역 코스피 상장사 3곳, 적자 전환 = 16일 한국거래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36개사(금융업 43개·분할합병 기업 36개사 등 96개사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감소로 적자 전환한 63개 기업에 한국전력, 보해양조, 금호산업 등 3곳이 포함됐다.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8147억3100만원의 영업 적자(연결기준)를 내면서 적자 전

환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조3096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한전은 올 상반기 1조1690억58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하위 20위', '순이익 하위 20위'에 이름을 올리는 굴욕을 맛봤다.

보해양조도 지난해 상반기 8억5200만원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달리, 올 상반기 88억8700만원의 영업 적자, 209억2100만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보해양조는 올 상반기 매출액이 377억4300만원에 머무르는 등 전년 동기(504억9400만원) 대비 25.25%나 급감하면서 '매출액

감소율 상위 20위' 기업에도 포함됐다. 금호산업도 올 상반기 38억35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 '63개 적자전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상반기 297억9700만원의 영업 적자에 896억8600만원의 손손실을 내는 등 적자를 지속하면서 '영업이익 하위 20위', '순이익 하위 20위'에 포함됐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동기(506억7900만원) 대비 영업 손실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 인수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우에이텍도 비슷하다. 대우에이텍은 상반기 268억5900만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 하위 20위'에 포함됐고 322억1100만원의 손손실을 내 '순이익 하위 20개사'에도 올랐다.

대우에이텍의 영업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적자 229억930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감지된다. 회전기공은 올 상반기 61억1000만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코스닥 상장사 실적개선 안간힘 = 대우에이텍은 전년 동기 대비 올 상반기 영업손실 313억1300만원, 331억6200만원의 손손실을 기록하며 '코스닥 영업이익·순이익 하위 20위'에 포함됐다. 대우에이텍은 코스피 상장기업인 대우에이텍의 계열사다.

광주지역 광트랜시버 제조 및 판매업체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오이솔루션도 올 상반기 3억5500만원의 손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다만, 오이솔루션은 1분기 19억9600만원의 손손실을 냈던 데 비해 2분기 16억4100만원의 순이익을 달성,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산은 올 1분기 2억3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지만 2분기 4억63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흑자로 돌아섰다.

한편,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오는 22일 광주·전남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대한 상반기 실적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0.80 (-18.11)	↓ 금리(국고채 3년)	2.05 (-0.01)
↓ 코스닥	761.18 (-0.76)	↑ 환율(USD)	1130.10 (+2.20)

효성, 공동 기업설명회 '코퍼레이트 데이'

효성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섰다. 1년에 1번 이상은 분할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기업설명회를 열 계획도 밝혔다.

효성은 1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분할사인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등과 공동 기업설명회 '코퍼레이트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사업회사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효성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주요 사업계획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효성은 국내 110여 곳의 기관투자자들을 초청, 분할회사별로 설명회 부스를 마련하고 1시간씩 순차적으로 기관투자자와 만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향후 주요 사업계획도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내년까지 인도에 스펠텍 스 공장을 건립해 시장점유율을 70%까지 늘리는 등 현지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1위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업체인 효성중공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코드 사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효성화학은 기존 국내 공장 외에도 부가 가치 폴리프로필렌 생산에 집중하고, 신설 베트남 공장은 현지 내수 및 동남아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전문 경영인 중심의 독립경영을 강화하는 등 시장과의 신뢰 관계를 확대해 왔다"며 "분할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 주주 가치 실현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은행, 여수시에 성금 1억원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6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기능보강사업비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이뤄졌으며 권오봉 여수 시장을 비롯해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기금으로 여수지역에 계신 많은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작년 여수수산물시장 화재 때에도 금융기관 최초로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을 기탁함과 동시에 긴급 복구자금 전달장구를 설치·운영해 금융지원에 적극 나섰다. 또한 지역사랑봉사단을 화재지역에 파견해 피해 상인들을 위한 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는 등 여수시급고로서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CIO 100 어워즈' 3년 연속 수상

공용플랫폼 개발 성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15일 저녁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란초 팔로스 버디스(Rancho Palos Verdes)에서 개최된 제31회 'CIO 100 어워즈'를 수상했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어워즈'는 글로벌 리서치·컨설팅 기관인 미국 IDG(International Data Group)가 1988년부터 해마다 우수 기업을 심사, 선정하는 행사다. CIO와 교수 등 50여명의 외부 전문위원의 1차 심사와 자체 전문가의 2차 심층 검증 거쳐 ICT 기반의 창의적 혁신성과가 탁월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참가한 400여개 기업과 기관이 경쟁을 펼쳐 한전, 지멘스, IBM, 캔자스시티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수상기업들 중 한전은 유일한 국내 기업이자 전세계 전력회사중에서도 유일한 수상 기업으로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매년 글로벌 ICT 트렌드를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해 설비운영효율 개선을 지향하는 2016년 '차세대 송변전자동화시스템(SCADA) 구축', 2017 '지능형 전력계량 기술(AMI) 개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



이중환(오른쪽)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이 제31회 'CIO 100 어워즈'를 수상한 뒤 마리프랜 요한슨 IDG 전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다. 특히 2018년에는 '디지털변환 공용플랫폼 정책·기술 개발'로 유틸리티 분야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전은 이번 수상으로 '에너지 전환, 디지털 변환'이라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합(Integration) 지원하는 공용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노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보해양조, 알리바바 브랜드관 오픈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B2C 플랫폼 'T-mall(티몰)'에 한국 주류회사 최초로 입점하게 됐다. 지난해 알리바바 그룹의 B2B 플랫폼인 '1688.com'에 입점한 이후 소비자 판매망까지 확보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게 됐다.

보해는 지난 6월부터 알리바바와 브랜드 로고 등 사용권리 협상을 진행한 끝에 오는 9월 T-mall에 보해 브랜드관을 오픈하게 됐다. 브랜드관에는 '일새주', '복분자주', '매취순' 등 보해가 만든 제품 10종이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소비자들이 보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리면서 기업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T-mall은 알리바바가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B2C 사이트다. T-mall 브랜드관에는 '폭스바겐', '노스페이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점해 있으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품 구성이 10종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보해양조 브랜드관이 생겼다는 것은 알리바바가 보해 제품 10개에 대해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사실상 품질을 보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짝퉁 제품이 많은 오



프라인 대신 알리바바가 품질을 보증하는 T-mall 등 온라인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 주요 화장품 판매 기업들은 알리바바 T-mall의 브랜드관에 입점해서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해는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알리바바 그룹의 1688.com에 입점했다. 이후 크라우드 펀딩 업체 '카이스바'(?始? Kai Shi Ba)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망을 갖췄고, 알리바바 B2C 플랫폼 T-mall에서 브랜드물에 입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앞으로 징동닷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출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보해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543,18㎡(469,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